

광주·전남 교육통합 새 시대... 연착륙 '시험대'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감 당선인

40년 만의 통합교육청 7월 1일 출범 '카운트다운' 주청사 운영·예산·인사·조직 개편 안정화 속제 교육주도 성장·500만 메가시티 'K-교육' 실험터

김대중 초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감 후보의 당선은 40년 만에 이뤄지는 역사적 교육행정 통합을 안정적으로 완수하고, '교육주도 성장'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실현할 적임자로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두 시·도 교육청이 하나로 통합되는 과정에서는 예산 배분과 인사권 조정, 조직 통폐합 등 복잡한 현안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행정 공백이나 혼란 없이 이를 연착륙시키는 것이 초대 통합교육감에게 주어질 가장 큰 과제다.

김 당선인은 이를 해결할 강점으로 현장에서 검증된 거버넌스(협치) 역량과 연간 5조원 규모 교육예산을 직접 운용해 온 행정 경험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교육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된 교원 인사와 조직 안정화 문제는 '현장 중심·지역 중심' 원칙 아래 해법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통합 본청은 정책·기획 기능 중심으로 조직 규모를 20%가량 줄여 효율성을 높이고, 대신 교육지원청의 기능과 권한은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전남 동부권 교육청사와 광주 지역 교육지원청을 추가 설치하고, '지역예산제'와 '지역지원제'를 도입해 지역 간 인사·행정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광주와 전남 간 교육격차 해소와 학군 재편 우려에 대해서는 인위적인 경계 설정보다 '학생의 학교 선택권 보장'을 최우선 가치로 제시했다. 시·도 경계 지역부터 자유학구제를 전면 도입해 원거리 통학 부담을 줄이고, 통합 스마트 통학버스망을 구축해 실질적인 교육 접근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또 사교육 격차가 지역 간 교육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공교육 현장에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반 교육 인프라를 구축해 지역과 계층에 관계 없는 맞춤형 책임교육 체계를 실현할 계획이다.

이번 선거 결과는 광주·전남이 교육을 매개로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500만 메가시티 상생발전'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으로 당선된 김대중 후보가 3일 선거사무실에서 지지자들과 함께 환호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김 당선인은 교육청·기업·대학·지자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4개 트랙 기반 10만 인재양성 생태계'를 구축하고, 이를 총괄할 법적 기구인 '(가칭) 전남광주 인재양성교육위원회' 신설을 공약했다. 통합특별시 출범의 효과가 지역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산·학·연 연계형 특화 교육과정을 확대하고, 지역 산업과 미래 인재 양성을 연계하는 교육체계를 구축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의 행정통합 인센티브를 활용해 조성할 1조5000억원 규모의 성장 중심 인재양성 장학기금과 '2028 대한민국 글로벌 미래교육박람회' 단독 개최는 지역 통합과 미래교육 비전을 현실화할 핵심 동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같은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김 당선인은 선거 직후 곧바로 전남교육감 직무에 복귀해 통합교육청 출범을 위한 실무 준비

에 착수한다.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통합 과정 전반을 차질 없이 관리하겠다는 의지다. 김대중 당선인은 당선소감을 통해 "전남·광주를 대한민국 교육특별시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김 당선인은 "시민들이 보내준 성원과 지지는 위기에 처한 지역 교육을 살리고 전남·광주 통합교육을 흔들림 없이 추진 하라는 명령이자 연인"이라며 "초대 전남

광주통합특별시 교육감이라는 역사적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합특별시 출범은 행정 통합의 완성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출발점"이라며 "행정 통합의 성공을 넘어 전남·광주를 대한민국 교육특별시로 성장시키고 세계의 인재들이 찾는 교육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인수 기자 joinsu@gwangnam.co.kr

김대중 당선인은 누구

해직교사에서 초대 통합수장으로

김대중 초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감 당선인은 평양에서 출발해 해직교사, 지방의원, 교육행정가를 거쳐 통합 교육수장에 오른 입지전적 인물이다.

전남 곡성군 삼기면에서 태어난 그는 어머니의 권유로 일찍이 교육자의 길을 선택했다. 전남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한 뒤 목포 정영고에서 교편을 잡았으나, 1989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활동으로 교직 생활 5년 만에 해직됐다. 이 과정에서 전교조 해직 반대 투쟁에 앞장섰다가 훗날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된 박승희와의 인연은 그의 삶과 교육 철학에 깊은 영향을 남겼다.

문민정부 출범 이후 복직 대신 정치권에 뛰어난 그는 목포시의원을 내리 3선하고 목포시의회 의장을 역임하며 풀뿌리 지방자치 현장을 누볐다. 특히 시의원 재임 시절인 2000년, 결실아동 문제가 심각했던 목포에서 전국 최초로 무상급식 도입을 이끌어내며 교육복지 정책의 선구자로 주목

받았다. 2003년에는 전남 남북교류협의회 소속으로 평양을 방문해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과 남북 화해·협력의 필요성을 알리는 활동에도 참여했다.

이후 2009년 전남교육희망연대 집행위원을 맡은 데 이어 민선 1·2기 전남교육감 비서실장으로 7년간 재임하며 교육행정 경험을 쌓았다. 2019년에는 30년 만에 목포제일중학교 교사로 교육 현장에 복귀했고, 지역 인구 감소와 미래교육 전환의 과제를 절감하며 2022년 전남교육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교육감 재임 기간에는 전국 최초의 전남 학생교육수당 도입과 2024 대한민국 글로벌 미래교육 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전남 교육 대전환'을 추진했다.

그리고 40년 만에 이뤄진 전남·광주 교육행정 통합을 이끌 초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감이라는 역사적 책무를 맡게 됐다. 김인수 기자 joinsu@gwangnam.co.kr

임문영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

"AI로 광산을·통합특별시 미래 바꾸겠다"

"주권자 뜻 받들며 새로운 정치 실천" 다짐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임문영 국회의원은 "AI를 기반으로 산업 전환을 이끌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겠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임 의원은 3일 당선 소감을 통해 "부족한 제가 전략공천을 받아 뒤늦게 선거에 뛰어들었지만 시민들께서 보내주신 크나큰 응원과 지지 덕분에 일할 기회를 얻게 됐다"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밝혔다.

그는 선거 과정에서 확인한 지역민들의 기대와 열망을 언급하며 AI 시대를 선도하는 도시 조성에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AI 시대를 맞아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큰지, 젊은 세대가 미래를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지 현장에서 절실히 느꼈다"며 "AI 전략가이자 미래성장 전문가로서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부으겠다"고 말했다.

이어 "AI를 기반으로 산업 전환을 이뤘다고 5·18 민주화운동 정신 위에서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도시를 만들겠다"며 "지역의 성장동력을 키우고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미래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치 혁신에 대한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새로운 정치, 새로운 미래를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임문영 국회의원이 꽃다발을 들고 환호하고 있다.

만들어가겠다"면서도 "하지만 시민들을 향한 초심만큼은 결코 바꾸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권자의 뜻을 따르고 시민의 목소리를 가

장 먼저 듣는 국회의원이 되겠다"며 "선거 기간 보내주시는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결과와 성과로 평가받겠다"고 다짐했다.

이현규 기자 gnews1@gwangnam.co.kr

무투표 당선인 기초단체장 2인

"경제·복지 성장하는 따뜻한 공동체 건설"

예산 확보 사활... 통합특별시 시대 최대 수혜지 약속

남구청장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 선거에서 3선에 성공한 더불어민주당 김병내 당선인이 "한 명도 소외되지 않는 행복한 복지남구, 경제와 복지가 함께 성장하는 따뜻한 공동체 남구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김 당선인은 3일 당선 소감을 통해 "이번 결과는 중대한 남구 발전을 향한 구민들의 선택이자 남구의 미래를 책임지는 명령"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는 "무투표 당선이라는 영광 뒤에는 더 무거운 책임이 따른다"며 "통합특별시 시대에 남구가 중심축이자 최대 수혜

지가 되도록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김 당선인은 "예산은 곧 시민의 삶이자 지역의 미래"라며 "더 많은 국비와 통합특별시비, 더 많은 투자와 기회를 이끌어 남구의 성장 기반을 더욱 탄탄히 다지겠다"고 말했다.

그는 통합특별시 출범이라는 기회 속에 남구의 몫을 확실히 확보하고 지역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또 교육·문화의 중심지였던 남구를 에너지밸리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 단지를 바탕으로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강력한 경제활력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착한도시 서구 시즌2 힘차게 열겠다"

소상공인특구·돌봄체계 강화·AI 미래도시 조성 약속

서구청장 김이강

서구청장 선거에서 무투표로 재선에 성공한 김이강 당선인이 "함께의 힘으로 더 따뜻하고 더 크게 도약하는 '착한도시 서구 시즌2'를 열겠다"고 밝혔다.

김 당선인은 3일 당선 소감을 통해 "저를 다시 한번 선택해 주신 서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밝혔다.

김 당선인은 지난 4년간 주민 중심 행정과 골목경제 활성화, 공동체 회복에 힘써 왔다고 평가하며 앞으로의 임기에는 성과를 더욱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특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AI 중

심도시 시대를 맞아 서구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특구 조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골목상권이 경쟁력을 갖추고 소상공인이 지역경제 성장의 주체가 되는 경제도시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주민 참여 확대를 통한 생활자치 실현 의지도 밝혔다. 김 당선인은 "주민이 생활 속에서 행정을 체감하고 지역의 미래를 함께 결정하는 지방정부 모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공원을 중심으로 한 생활플랫폼 구축과 돌봄체계 등 복지 강화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AI와 디지털 기술 기반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의 혁신 생태계를 구축해 청년 일자리와 기업 성장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그는 "초심을 잃지 않고 늘 현장 서구, 더 따뜻한 서구, 더 크게 성장하는 서구를 반드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